

남공철 연행록 연구*

안순태**

- I. 서론
- II. 『일기(日記)』의 저자와 체제
- III. 청조(淸朝) 인사와의 교류
- IV. 환술(幻術)에 대한 기록과 그 특징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의 연행록 『일기(日記)』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공철은 1807년(순조7) 동지사 정사(正使)로 연행하였는데, 『일기』는 그때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본래 3책이었는데 제1책은 일실되고 현재 제2책과 제3책이 도쿄 이시카와 다케요시 도서관 세이키도 문고에 전하고 있다.

『일기』는 제1책이 일실되어 저자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필자는 먼저 제3책 끝에 붙어 있는 「서후(書後)」 내용 등 몇 가지 근거를 통해 이 연행록이 남공철의 저작임을 밝혔다. 현전하는 제2책과 제3책은 남공철이 북경에 도착한 직후부터 한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다. 『일기』는 연행 도정이나 북경에 머무는 동안 이미 대부분의 내용이 갖추어졌고, 남공철이 조선에 돌아온 후 정사(淨寫)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경에 머무는 동안 남공철은 저유인(褚裕仁), 진용광(陳用光), 조강(曹江)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임 (NRF-2017S1A5A8020929).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등 북경의 여러 인사들과 교류하였다. 『일기』에는 그 교류 양상과 필담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저유인, 오사권 등은 남공철이 머물던 옥하관에 찾아와 직접 만나 교류하였는데, 필담을 통해 당시 중국과 조선 학계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은 점이 주목된다. 반면 진용광(陳用光), 조강(曹江), 이임송(李林松) 등은 남공철의 군관으로 동행했던 남석로(南石老)를 통해 간접적으로 교류하였다. 이때 교류한 조강과 이임송, 진희조는 남공철의 시문에 부치는 서문을 써주어 후에 남공철이 『금릉집(金陵集)』을 찬할 때 그것을 수록하기도 하였다. 남공철이 직·간접적으로 교류하였던 북경 인사들 가운데는 이전부터 조선 사행단과 교류하던 이들이 다수 있었다. 남공철이 한 달 남짓 북경에 머물면서 열 명이 넘는 많은 북경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연행 전에 북경에 관한 다양한 사전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공철 연행록에서 또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환술에 대한 기록이다. 남공철은 환술인(幻術人)을 남관(옥하관) 딸로 불러들여 환희(幻戲)를 관람하였는데, 그 연행(演行) 양상에 대한 묘사가 간명하면서도 사실적일뿐더러 환술이 어떤 속임수를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환술을 분석적으로 관람할 수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로 이미 북경에 다녀온 선배들로부터 얻은 충분한 정보 덕분이었다.

남공철은 중국 인사들의 문집 서문과 연행 과정에서 쓴 시문 일부를 자신의 문집에 수록하고 있는데, 그간 그의 연행록의 존재는 거의 알려진 바 없었다. 건물의 제도 등 일부 서술이 지나치게 상세한 것이 흠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상세한 서술이 중국 문인들과의 교류 기록이나 환술 기록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전해들은 것을 눈으로 보는 듯 사실적인 문장으로 재현하는 남공철의 장치가 그의 연행록 곳곳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핵심어 : 남공철(南公轍), 연행록, 이덕무, 남석로, 저유인(褚裕仁), 진용광(陳用光), 조강(曹江), 이임송(李林松), 환술(幻術)

1. 서론

본고는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의 연행록 『일기(日記)』의 전반적인 내용과 연행록으로서의 특징에 대해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공철은 1807년(순조7) 10월, 동지사(冬至使) 정사(正使)로 부사 임한호(林漢浩, 1752~1827), 서장관 김노응(金魯應, 1757~1824) 등과 함께 북경에 다녀왔다. 『일기』는 그때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남공철은 10대 중후반부터 20대에 이르도록 이덕무, 박지원, 박제가 등 이른바 북학과 문인들과 활발히 교류하였다.¹⁾ 이 시기는 그들이 한창 북학을 주창하던 시기이자 그들 스스로 직접 연행을 한 시기이기도 하다.²⁾ 그러니 남공철은 수학기부터 그들로부터 연행 체험에 대해 직접 전해 듣는 등 북학 열풍의 중심에 아주 가까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그는 『열하일기』가 세상에 전해지기 전, 박지원이 그 초고를 직접 읽는 것을 듣기도 하였다.³⁾ 벗들과의 교류가 10대 내지 20대 초반 한 인물의 취향이나 관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공철은 일찍부터 북경의 인사(人士)나 문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남공철의 문집 『금릉집』은 자찬문집으로, 여기에는 조강(曹江), 이임송(李林松), 진희조(陳希祖)가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남공철이 연행하였을 때 북경에서 교류한 이들이다. 남공철이 자찬문집 서문으로 이들의 서문만을 수록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이들과의 교류를 중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의 문집에는 연행 과정에서 북경 인사들과 필담을 나누는 경험을 기록한 「연경필담서(燕京筆談序)」(『영웅재속고』 권2), 연행 당시 유구(琉球) 사신들과 만났던 경험을 기록한 「기유구인어(記琉球人語)」(『금릉집』 권14) 등도 수록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연행 과정에서 지은 시도

1) 이덕무와는 16세경(1775)부터, 박지원과는 그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남공철이 10대이던 1770년대에 이들은 전의감동에 살던 박지원을 중심으로 활발히 교류하였으며 남공철도 그 모임에 자주 참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졸저, 『남공철 산문 연구』, 월인, 2015, 40~44면 참조.

2) 이덕무는 1778년에, 박지원은 1780년에 연행하였고, 박제가와 유득공은 각각 1778년, 1790년, 1801년에 함께 연행하였다.

3) 南公轍, 『朴山如墓誌銘』, 『金陵集』 권17.

그의 문집에 50수나 전한다.⁴⁾ 젊은 시절 교유한 벗들의 북학 열풍을 가까이서 접하고, 그 스스로 연행할 당시에 지은 시와 북경에서의 체험을 문집에 남기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남공철 또한 따로 연행록을 남겼을 법하다. 그런데 남공철 연행록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남공철 연행록의 존재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후마 스스무 [夫馬進] 교수는 한학(漢學)과 송학(宋學)에 대한 청조(淸朝)의 논의를 연행사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추적한 바 있는데, 남공철 또한 연행 경험을 통해 한학과 송학에 관한 청조의 정보들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남공철 연행록의 존재를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⁵⁾ 그러나 그 이상 남공철 연행록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필자는 남공철 연행록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남공철의 연행록 『일기(日記)』(이하 『일기』라 칭함)는 현재 도쿄 이시카와 다케요시[石川武美] 도서관⁶⁾의 세이키도[成實堂] 문고에 2책(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애초에는 전3책이었으나 제1책이 일실되어 제2책(전71장)과 제3책(전72장)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남색 비단 표지에 책제(冊題)는 ‘日記’라 되어 있으며 각 장(張)의 한 면은 10행으로, 한 행은 23자 내외이다. 가로 17.5cm, 세로 28.5cm 규격에 필체는 대체로 가지런하고 일관성 있는 해서로, 남공철의 친필로 보인다.

II. 『일기』의 저자와 체제

1. 『일기』의 저자 고정(考定)

『일기』가 어떤 경위로 도쿄의 이시카와 다케요시 도서관에 이르렀는지는 분명치 않다. 남공철 사후 유전(流轉)되던 것을 도서관이 입수하여 소장하고 있는 듯하다.⁷⁾ 제1책이 일실되었고 현전하는 제2책과 제3책 표지와 내지에

4) 『금릉집』 권4의 <西京懷古>부터 <桃花洞>까지의 41제 50수가 연행 과정에서 지은 것이다.

5) 후마 스스무, 『연행사와 통신사』, 하정식 외 역, 신서원, 2008, 145면.

6) 2013년 이전에는 ‘오차노미즈 도서관[お茶の水図書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 일본 공익법인제도 개혁에 따라 2013년에 ‘一般財団法人 石川武美記念図書館’으로 바뀌었다.

저자명이 없어 이것이 남공철의 연행록임을 알아보는 것이 쉽다.

이 책이 남공철의 연행록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이다. 우선 유전(流轉) 과정에서 이 책을 소장하였던 ‘향원(嚮園)’이라는 호를 쓰는 이가 제3책 끝에 부기한 『서후(書後)』에서 이 연행록이 남공철이 지은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 수 있다. 향원이 쓴 『서후』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집에는 예전부터 소장해 오던 연행일록(燕行日錄) 두 권이 있는데 본디 세 권이었다가 그 첫째 권을 잃어버렸다. 누가 저술한 것인지 알지 못했는데 고의(古義)에 뛰어난 것이나 풍토를 서술한 것, 경치를 묘사한 것이 자못 넉넉하고 볼 만하였다. 더욱이 시문(詩文) 방면에 있어서 스스로 자부심이 대단했다.

올해 중춘(仲春)에 내가 집에 머물면서 일이 적어 우연히 가져다 읽어 보고는 비로소 남태사(南太史) 금릉씨(金陵氏)가 쓴 것임을 알게 되었다. 서체가 귀하고 가늘게 이어지고 있으니 신빙성이 있다. 금릉씨의 기록임이 분명하다면 그 넉넉하고 자세한 서술이나 시문에 대해 자부하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일찍이 그 전체를 읽어보니 과연 고인(古人)의 체제에 뜻을 두고는 있지만 옛날 작자들의 깊은 곳까지 살피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기록한 것이 또한 과장되고 요점이 없다. 그러나 넉넉하고 자세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권을 잃어버린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무인(戊寅) 중춘(仲春) 회일(晦日)에 향원(嚮園)이 쓰다.⁸⁾

무인(戊寅)이라는 연기(年紀)로 보아 향원(嚮園)이 이 글을 쓴 것은 1878년으로 보인다. 향원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며, 남공철의 연행록이 어떻게 그의 집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또 남공철의 문장과 서체의 특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원은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향원은 자신의 집에 소장하고 있던 연행일록 두 권은 본디 세 권이었는데 첫째 권을 잃어버렸다는 점, 한가

7) 도서관 측에 문의하여 보았으나 입수 경로는 미상이다. 도서관에서 입수할 당시부터 제1책은 일실된 채 두 책만 있었다.

8) “余家有舊藏燕行日錄二弓，蓋三弓而逸其首弓矣。未知誰人所述，其於考古義絃風土寫景狀，頗瞻悉可觀，尤於詩文一道，自詡甚夸。今歲仲春，余在家少事，偶取而閱之，始知南太史金陵氏之錄也。書貴細釋者，其信矣乎！既是金陵氏之錄宜乎，其瞻悉也，夸詡于詩文，亦無怪矣。然其全稿，余嘗覽之，誠有志乎古人體裁，寔未窺古作者堂奧矣。唯茲錄亦浮誇而少精要，然而以其瞻悉，故中州景狀，亦可以得其槩矣。首弓之見逸殊，可惜也已。”(『일기』 책3, 『書後』)

할 때 우연히 보다가 그것이 금릉 남공철이 지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남공철의 연행록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를 행하고 있다.

항원은 무엇을 근거로 이 연행록이 남공철의 것이라고 하였을까? 『서후』에서는 가늘고 길게 이어지는 서체의 특징, 시문에 대해 자부하는 내용, 넉넉하고 자세한 서술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일기』의 내용 중에도 이 연행록의 작자가 남공철임을 짐작케 하는 구절이 적지 않다. 우선 북경에서의 필담 내용 중 ‘금릉선생(金陵先生)’, ‘금릉공(金陵公)’ 등 남공철의 호 ‘금릉(金陵)’이 여러 곳에서 보여 이 연행록의 저자를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일기』가 남공철의 저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근거는 『일기』에 보이는 시가 남공철의 문집 『금릉집』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기』 1808년(순조8) 정월 12일조에는 남공철이 북경에서 교유한 저유인(褚裕仁)과 오사권(吳思權), 고양청(高揚淸)에게 준 시가 있는데, 이 시들이 그대로 각각 <증섬서저수재(贈陝西褚秀才)>, <증오효렴견방(贈吳孝廉見訪)>, <간고수재(簡高秀才)>(이상 『금릉집』 권4)라는 제목으로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작자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많지만 이것만으로도 이 연행록이 남공철의 저작임을 확인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2. 『일기』의 체제와 저술 경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기』는 일록(日錄)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매일의 기록은 ‘초4일 신축 맑음. 남관에 머물다[初四日 辛丑 晴 留南館]와 같이 날짜와 일진, 날씨, 노정을 차례로 적고 이어서 그날의 주요 사건, 견문을 적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807년 동지사 사행에 남공철과 함께 참여했던 이가 지은 『중주우록(中州偶錄)』⁹⁾을 참고해 보면 일실된 제1책의 여정도 가늠할 수 있다. 제1책은 1807년(순조7) 10월 29일 경성(京城)을 출발하여 평양(平壤), 의주(義州), 책문(柵門), 심양(審陽)을 거치는 일반적인 연행 경로를 따라 북경 옥하관에 도착(12월 24일), 그 직후인 12월 25일까지의 기록으로 추정된다.

9) 일본 간사이대학[關西大學] 도서관 소장본으로, 임기중 교수가 엮은 『연행록속집』 122권에 수록되어 있다. 『중주우록』 서두는 “上之七年丁卯十月二十九日丁酉”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로 보아 이 연행록이 남공철이 정사로 연행했던 1807년(순조7) 동지사행 때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제2책은 북경 도착 직후인 12월 26일부터 이듬해 정월 14일까지 북경에서의 기록이고, 제3책은 정월 15일부터 다시 경성(京城) 집에 당도하는 3월 20일까지의 기록이다. 이를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책차	날짜	여정	비고
제1책	1807년 10월 29일 - 12월 25일	경성 - 북경	실전(失傳)
제2책	12월 26일 - 1808년 1월 14일	북경(옥하관)	
제3책	1월 15일 - 3월 20일	북경(옥하관), 북경 - 경성	

남공철 연행록에는 기억에 의지해 적기에는 한계가 있는 구체적인 정황 묘사가 적지 않다. 이로 보아 연행 당시 남공철이 기록해 둔 초고가 이미 상당량 축적되었을 것이며 그것은 현전하는 유일본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소한 경험까지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대목을 보면 이 연행록이 이미 연행 당시에 현전하는 『일기』와 근사한 형태를 갖추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1808년 정월 초하룻날, 새해 초참(朝參)에 참석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본 것들, 그리고 옥하관 관소에 돌아와서의 일을 남공철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간신히 길을 찾아 나오니 좌우의 가게들이 모두 닫혀 있었다. 설에는 관례대로 가게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길에는 많은 부녀들이 태평거를 타고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시비들도 모두 곱게 단장을 하고 문에는 주렴을 걸고 앉은 채 베를 짜듯 정연하게 오갔다. 새해 인사 때문에 그러한 것 같았다. 좌우에는 유리를 붙여 속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어떤 이는 보계를 한 채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미목(眉目)이 그림 같았으며 어떤 이는 양관(梁冠)을 쓴 채 붉은 옷을 걸치고 꼼짝 않고 단정히 앉아 있으니 바로 봉작을 받으러 가는 부인이었다. 간간이 빼어난 미인들도 많았는데 길고 가늘고 길고 짧은 것이 모두 적당하였으며 얼굴은 모두 옥처럼 희어 깨끗하고 다섯 손가락은 반짝반짝 흐르는 것 같았다. 북경 여자들은 겨울에 하늘타리 뿌리(括藁) 분말을 얼굴에 바르는데 덧바르지만 하면서 봄이 올 때까지 씻지 않고 있다가 따뜻해지고서야 씻어낸다. 바람이나 햇볕에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들 한다고 한다.

관소에 돌아왔더니 어선방(御膳房)에서 금식(克食) 등의 물건을 보내왔다. 아침 내내 추운 데 있었더니 신기(神氣)가 매우 고달랐다. 게다가 새해를 맞이하는 감회

까지 더하니 억제하기가 갑절이나 어려웠다. 푸른 유리병에 가득한 금붕어를 자리 밑에 놓아두었는데, 시장에서 산 것이다. 베개에 기대어 그것들이 헤엄치는 걸 바라보니 귀여웠다.¹⁰⁾

조참(朝參)에 참석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본 광경을 자세하면서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유리 창문이 달린 가마에 탄 부녀들을 자세히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묘사는 당일에 기록해 두지 않은 것이라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시장에서 사온 금붕어를 푸른 유리병에 담아두고 헤엄치는 걸 구경하는 장면까지 더하면 위 인용한 내용은 한 편의 소품문이라 하여도 무방할 정도다.

한편 이시카와 다케요시 도서관 소장본 『일기』 두 책은 수정의 흔적 없이 정사(淨寫)되어 있다. 또 환술(幻術)을 관람하고 그것에 대해 기록한 내용 끝에 “기타 경악할 만한 일들이 모두 눈앞에 보이는 듯 그날처럼 또렷하다”¹¹⁾라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수정한 흔적이 없다는 점, 훗날의 감회가 더해진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일기』는 연행 과정에서 이미 거의 형태가 갖추어진 것을 남공철이 조선에 돌아온 직후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정사(淨寫)해 완성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연행 당시 남공철은 정사(正使)로서 행동 제약이 많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혼자 연행록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¹²⁾

10) “艱辛覓路而出，左右廛房皆閉，元朝例不得開市故也。路多婦女乘太平車，侍婢皆粧束艷冶，當門簾而坐，來往如織，想因新歲人事而然矣。左右貼琉璃，故洞見其內。或寶髻繡眉目如畫，或戴梁冠披紅袍，端坐不動，蓋受封之命婦也。間多絕美者，纓織長短，俱適其宜，面皆潔白如玉，五指炯然若流。蓋北京女子，冬日以括蓐未塗面，但加傅而不沐至春，暖方滌去，不爲風日所侵，故如是云矣。即歸館所，自御膳房追送克食等物，終朝處冷，神氣甚憊。並與逢新之懷，一倍難抑，以青琉璃瓶盛金鮒魚，置諸座隅，蓋市上所賣也。欵枕而觀其游泳，可愛。”(『일기』 책2 장28b~29a, 1808년 정월 초1일조)

11) “其他可驚可愕之事，舉在目前，歷歷如當日。”(『일기』 책2 장34a, 1808년 정월 초4일조)

12) 남공철은 正使로서 玉河館 바깥으로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였고 황제가 베푸는 연회에 참석하는 등의 공식 행사가 아니면 즐곳 관소 안에서 지냈다.

III. 청조(淸朝) 인사와의 교류

남공철은 북경에 머물면서 많은 청조(淸朝) 인사들과 교류하였다. 그 자신의 문집 『금릉집』 서문에는 그때 교류한 조강(曹江, 1781~?), 이임송(李林松, 1770~1827), 진희조(陳希祖, 1767~1820)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자찬문집인 『금릉집』 서문으로 이 세 사람의 서문만을 수록하고 있다는 것은 남공철 스스로 이들과의 교류에 큰 의의를 두고 있었음을 뜻한다.¹³⁾

교유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일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남생(南生)’이라는 인물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남생을 보냈다[送南生]’, ‘남생이 와서 말했다[南生來言]’, ‘남생이 약속을 지켜 찾아갔다[南生踐約而往焉]’, ‘남생이 갈 때[南生去時]’ 등 남공철의 연행록에는 ‘남생’이 상당히 자주 등장한다.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남공철이 북경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남생’ 덕분이었다. 남생은 누구인가?

남공철의 연행록에는 남생이 누구인지, 그 이름조차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남공철은 『일기』에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를 다음과 같이 남겨 놓고 있다.

남생(南生)의 형 척로(陟老)가 몇 해 전 연경에 왔을 때 일찍이 조강(曹江)과 교제한 일이 있다. 그래서 며칠 전 남생이 특별히 찾아갔던 것이다.¹⁴⁾

남생의 형이 척로라 하였는데, 남척로(南陟老, 1762~?)는 남공철이 연행하기 3년 전인 1804년(순조4) 사은겸동지사(謝恩兼冬使) 사행을 따라 연행(燕行)했던 인물이다. 당시 연행사절의 정사는 김사목(金思穆), 부사는 송전(宋銓), 서장관은 원재명(元在明)이었는데 남척로는 부사 송전의 군관으로 동행하였다.¹⁵⁾ 남척로의 행적은 당시 정사 김사목의 반당으로 연행했던 김선민(金

13) 남공철은 이들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과 교류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북경에서 사귀어 이들은 모두 명(明)의 유민(遺民)의 후손들이다. 남공철은 여전히 대명의리론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그들과의 교류를 중시하였고 그 서문을 자신의 문집에 수록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남공철의 연행 체험과 대청의식』, 『국문학연구』 제36집, 국문학회, 2017 참조.

14) “南生之兄陟老, 年前入燕時, 曾與曹江訂交, 故日前南生特爲往訪.”(『일기』 책2 정50a, 1808년 정월 초7일조)

15) “副使參判宋銓, 軍官通德郎金瑛, 南陟老.”(元在明, 『一行總錄』, 『芝汀燕記』 권3)

善民)의 『관연록(觀燕錄)』이나 서장관 원재명의 『지정연기(芝汀燕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민은 “밥을 먹은 뒤 다시 청류(淸流) 및 남척로(南陟老)와 오류거로 향하여 종일토록 필담하였다”라 하였고¹⁶⁾ 원재명은 “계명(季明)이 희천(希天, 곧 김선민) 및 남척로와 함께 옥수(玉水)의 집에 가 시주서화(詩酒書畫)의 모임을 가졌다”라 하였다.¹⁷⁾ 오류거는 북경 유리창 서가(西街)에 있던 책사(冊肆) 이름으로 박지원이나 이덕무, 유득공 등 조선 후기 문인들이 유리창을 들르면 반드시 찾아가 책을 사거나 북경 인사들과 교류하던 장소이다.¹⁸⁾ 또 옥수(玉水)는 조선의 여러 문인들과 교류한 바 있는 조강(曹江)의 자(字)이다. 남척로가 이미 조강을 만난 일이 있다는 점을 남공철은 위와 같이 특기하고 있고, 이 때문에 그 아우 남생은 주저 없이 조강을 찾았던 것이다.

남공철의 연행록에 등장하는 남생, 즉 남척로의 아우는 바로 남석로(南石老, 1770~1837)다. 남석로는 자가 양사(良師), 호가 곡하(穀下)로 의령남씨 족보에 의하면 현감 벼슬을 지냈다.¹⁹⁾ 남석로는 남공철과 같은 의령남씨 종인(宗人)이자 연행 전부터 남공철과 알고 지내던 사이다. 남공철의 문집에는 그와 어울리며 지은 시가 모두 네 편 수록되어 있다.²⁰⁾ 1807년 연행 당시 남석로는 군관 자격으로 남공철을 따라 연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행 후에도 남공철은 남석로와 교류를 이어가는데, 1825년 봄에는 남석로와 함께 뱃놀이를 하다가 북경에서의 일을 떠올리고 『연경필담서(燕京筆談序)』(『영웅재속고』 권2)를 짓기도 하였다.

남공철이 북경에서 교류한 인사들은 대략 열 명 남짓이다. 이들은 남공철이 직접 만나 필담으로 교류하였는가, 혹은 남석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교류

16) “飯后又與淸流及南陟老，更向五柳居，竟日筆譚。”(金善民, 『觀燕錄』 上, 12월 24일조)

17) “季明與希天、南生陟老，往玉水家，有詩酒書畫之會。”(元在明, 앞의 책, 정월 20일조)

18) 오류거에 대해서는 정민, 『연행 기록을 통해 본 18~19세기 북경 유리창 서점가』, 『북경 유리창』, 정민 외, 민속원, 2013, 111~112면 참조.

19) “字良師，號穀下，庚寅生。縣監。丁酉八月十九日卒。墓錦山富西面機谷玉女峰下辰坐。”(의령남씨대종회 편, 『宜寧南氏族譜』 권1, 708면) 남석로의 부친은 南泰著(1709~1774)로 호조참판, 대사헌 등을 지냈다. 남석로에게는 척로 외에도 柱老(1732~?)와 巖老(1741~?)라는 두 명의 형이 더 있었다. 척로, 석로와 주로, 암로는 형제였음에도 나이 차이가 상당하다. 이로 보아 척로와 석로는 서얼 출신이 아니었을까 한다.

20) 『篆經齋，與松孫宗人良師 石老、丁生志學小集，賦得甘紅露』; 『與松孫良師丁生，夜集書船閣觀梅，拈韻志懷』; 『月夜，與良師丁生對酌』(이상 『금릉집』 권3), 『與良師對飲至夜』(이상 『영웅재속고』 권1).

하였는가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남공철과 북경 인사들의 교류는 남석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1. 저유인(褚裕仁)·오사권(吳思權) 등과의 직접 교류

남공철은 정사의 직위로 연행하였기 때문에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다. 그는 오로지 남석로를 통해 북경 인사를 수소문하고 그 인사가 옥하관으로 남공철을 직접 찾아와서야 필담으로 교류할 수 있었다. 당시 조선관이었던 옥하관에는 청(淸)의 관리들도 자주 드나들어 북경 인사들 가운데는 괜한 오해를 살까 하여 조선관으로 직접 찾아오는 것을 꺼리는 일도 많았다.

그럼에도 직접 옥하관으로 찾아와 남공철과 필담으로 교류한 이들이 있다. 대표적인 이가 저유인(褚裕仁)이다. 남석로가 유리창에 갔다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 그 문아(文雅)함을 보고는 저유인과 교류하게 되면서 남공철과 저유인의 교류 계기도 마련되었다. 저유인은 그 이튿날 단신으로 남공철이 머무는 옥하관에 찾아와 남공철과 필담을 나눈다.²¹⁾ 북경에 도착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저유인을 처음 본 남공철은 그 첫인상에 대해 “나이는 서른이 안 되었는데 얼굴은 옥설(玉雪) 같았고 미목은 시원시원하였으며 행동거지는 여유롭고도 운치가 있어 독서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묻는 족족 바로 대답하였는데, 문필이 모두 아름다웠다”라 적고 있다.²²⁾

남공철은 저유인과 상당히 긴 필담을 나누는데, 『일기』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필담 시작 직후 먼저 저유인이 삼사(三使)의 성명과 관작을 묻자 적어 보여주고는 다음과 같은 필담이 이어진다.

내가 “그대는 저수량(褚遂良: 唐의 서예가)의 후예이신지요?” 하고 묻자 “그렇습니다”하고 답하였다. 내가 말했다.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워요.”

저생(褚生)이 말하였다. “공문(孔門)의 경술(經術)은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 [富]과 가르치는 것[教]의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²³⁾ 귀국에서는 어떤 것

21) “午間, 陝西隴中縣優貢生褚裕仁進館云. 故卽與价往, 三房同坐筆話. 昨日南生及書狀子弟, 往觀琉璃廠, 路次邂逅. 見其文雅, 仍與同往所寓處, 約以今日來訪矣, 果爲踐約而至.”(『일기』 책2 장3b, 1807년 12월 27일조)

22) “年未三十, 面如玉雪, 眉目踈朗, 舉止閒雅, 可知爲讀書人也. 隨問輒對, 文筆俱佳.”(『일기』 책2 장3b, 1807년 12월 27일조)

을 먼저 힘쓰며 학문하는 이들은 무엇을 중요한 도(道)로 삼습니까?”

내가 말하였다. “저희 나라가 비록 바다 끝 외진 곳에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기성(箕聖)의 가르침이 남아 있습니다. 선배 장자들 가운데는 학문과 경제제민을 자기 소임으로 삼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문하는 이들은 오로지 정주(程朱)를 종사(宗師)로 삼습니다. 백성들을 풍족하게 하는 것은 곡식을 사고팔며 옮기는 등 (그 방도가) 한 가지가 아니지만 그 핵심은 농상(農桑)에 힘쓰는 데서 벗어나지 않으며 하찮은 재주는 천하게 여길 따름입니다.”

저생이 말하였다. “평소 듣기로 동국은 풍기(風氣)가 중화와 같다고 하던데 이제 맑은 가르침을 듣자오니 비로소 모든 것이 과연 그러해서 그 성명(聲明)이 문물의 나라라는 것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²⁴⁾ (괄호는 인용자)

이어서 남공철은 중국의 시문에 대해 논하면서 문장가로는 위희(魏禧, 1624~1680), 소장형(邵長蘅, 1637~1704), 후방역(侯方域, 1618~1655)을, 시인으로서는 왕사정(王士禎, 1634~1711)을 제일로 친다고 하였다.²⁵⁾ 남공철은 위희와 소장형이 구양수와 증공을 잇고 있다고 하였거니와 이들은 왕완(王琬, 1624~1691)과 더불어 청초(淸初) 고문삼대가(古文三大家)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어서 남공철은 중국에서 이학(理學)과 사업(事業)은 누구를 제일로 치는지 물었다. 이에 저유인은 경제제민, 이학, 박학, 문장, 시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당대에 가장 이름이 높다고 하였다.²⁶⁾

- 23) 『논어』 「자로」에 “子適衛，冉有僕。子曰：‘庶矣哉！’冉有曰：‘既庶矣，又何加焉？’曰：‘富之。’曰：‘既富矣，又何加焉？’曰：‘教之。’”라는 구절이 있다.
- 24) “余問曰：‘君是褚遂良之後裔耶？’答曰：‘然矣。’余曰：‘可敬可敬。’褚生曰：‘孔門經術，不外富教兩端，貴國以何者先務，造士以何者爲要道？’余曰：‘敝邦雖僻處海隅，尚有箕聖遺教，先輩長者，多有以學問經濟爲己任。故造士則專以程朱爲宗師，足民則有糴糶轉漕，不一其端，而要其歸不出於務農桑賤末技而已。’褚生曰：‘素聞東國風氣與中華同，今承清誨，始悉一切眞，不愧聲明文物之邦矣。’”(『일기』 책2 장3b~장4a, 1807년 12월 27일조)
- 25) “余曰：‘中國文集，雖未多見而槩得一二文章，則魏叔子、邵青門、壯悔堂最爲醇正，得歐曾嫡傳。詩則王漁洋爲大家。’”(『일기』 책2 장4a, 1807년 12월 27일조)
- 26) “褚生曰：‘經濟如韓城王相國偉人、山東劉石菴鏞，理學如陸稼書、蔡問之，博學如崑崙宗伯、彭元瑞尚書、鮑桂星、朱士彥，文則陳鶴、蔣祥墀，詩則袁枚、孫豹人、吳省欽、吳信臣、張問陶、吳肅、黃越，此最著，而陸稼書，現祀孔廟。’”(『일기』 책2 장4a, 1807년 12월 27일조)

분야	인물
경세재민	왕위인(王偉人), 유옹(劉鏞)
이학	육가서(陸稼書), 채문지(蔡問之)
박학	기균(紀昀), 팽원서(彭元瑞), 포계성(鮑桂星), 주사언(朱士彦)
문장	진학(陳鶴), 채상지(蔣祥墀)
시	원매(袁枚), 손표인(孫豹人), 오성흠(吳省欽), 오신신(吳信臣), 장문도(張問陶), 오자(吳肅), 황월(黃越)

이윽고 저유인이 조선에서 누가 이학(理學)으로 이름이 높는지 묻자 남공철은 그에 대해 이황(李滉), 조광조(趙光祖), 이이(李珣), 송시열(宋時烈)이 사문(斯門)의 정맥을 이어 선비들의 표식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²⁷⁾

남공철은 저유인을 통해 오사권(吳思權), 고양청(高揚淸)과도 교류하게 된다. 오사권과 고양청은 저유인의 고향 친구들이다. 오사권은 시에 뛰어나고 고양청은 글씨를 잘 썼으며 둘 다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북경에 머무르고 있었다.²⁸⁾ 남공철이 저유인을 처음 만나 필담을 나눈 것은 1807년(순조7) 12월 27일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정월 6일, 저유인은 오사권과 고양청을 대동하고 옥하관으로 남공철을 찾아온다. 이날 남공철은 저유인과 한송논쟁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내가 말하였다. “칭찬이 지나치셔서 부끄럽습니다만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 의리는 마땅히 주자를 위주로 해야 하고 훈고는 또 한유(漢儒)의 견해를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지요. 경의(經義)는 천하의 공물(公物)이니 꼭 정주(程朱)의 설이 맞다고 다들 필요가 없는데 어찌 논란하기를 좋아하는지요. 모두 부득이해서 천하의 지극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설을 존중한다면 반드시 정주의 문호를 지키되 한유의 훈고를 참고해야지, 꼭 억지로 자기 주장을 내세워 지리한 데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것인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생이 말하였다. “한유(漢儒)의 훈고는 비록 지나친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학

27) “仍問曰：‘貴國理學之士，請示姓名，有所著作否？’余曰：‘敝國有李退溪、趙靜菴、李栗谷、宋尤庵諸先生，直接斯門之正脈，蔚爲士林之標式，朝野尊師之。外此名儒宿士，項背相望，皆有文章行也矣。’”(『일기』 책2 장4a~장4b, 1807년 12월 27일조)

28) “南生往褚裕仁處筆譚而還，言猪生約其同省友人吳思權、高揚淸同會，出茶果待之。吳生現住西河公中間渭南會館，以孝廉當赴春闈，而能詩人也。高生現住宣武門外韓城會館，而秀才當赴秋闈，與猪生同而善筆藝。”(『일기』 책2 장36a~장36b, 1808년 정월 초5일조)

하여 더 이상 다듬을 수 없는 것은 주자도 존중하여 지켰습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걸핏하면 한유의 사소한 오류를 공격하고 정주(程朱)의 학설 또한 어리석다고 하는 경우에까지 이르고 있으니 정도가 지나친 것을 어찌 그리 스스로 헤아리지 못함이 심한지요. 의리는 정주를 고수하고 훈고는 한유를 삼가 따르는 것, 이것이 만세의 배우는 자들의 준칙일 터이니 선생의 이 말씀은 존경할 만합니다.”²⁹⁾

위 필담 내용에서 보듯 한송논쟁과 관련해 남공철이 저유인으로부터 특별한 가르침을 들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남공철의 견해, 즉 한송절충론에 대해 저유인이 동조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찍이 후마 스스무 교수는 남공철이 연행 과정에서 청조의 최신 학술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³⁰⁾ 위 필담으로 보면 청조 학술로부터 남공철이 받은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다.

이날 이후에도 남석로는 몇 차례 저유인과 오사권의 처소에 찾아갔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남공철은 북경에 머무는 동안 여러 차례 이들과 소식을 주고받았다. 1월 24일에는 남석로가 오사권 처소에 갔다가 오사권의 스승 유매조(柳邁祖)를 만나 그에게 부탁해 남공철의 정자(亭子)와 당(堂)의 편액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유매조가 당(唐)의 서예가 유공권(柳公權)의 후예라는 말을 듣고 남석로가 그 자리에서 부탁하여 받은 것이었다.³¹⁾ 후에 남공철은 저유인, 오사권과의 만남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하루는 양사(良師, 남석로)가 유리창에 가서는 두 객을 데리고 왔다. 한 사람은 설산(雪山) 저유인(褚裕仁)이었으니 곧 당(唐) 수량(遂良)의 후예였고 다른 한 사람은 평암(平菴) 오사권(吳思權)이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에 응시하고자 연경에 머물

29) “余曰：‘過獎可媿，而言論甚好。義理當主朱子，而訓詁則漢儒，亦不可全棄。經義天下之公物也，不必爭爲程朱之說，豈好辯哉，皆不得已也，而言天下之至文也。尊爲經說，必謹守程朱門戶，參以漢儒訓詁，不必強立己說以爲支離之歸，未知如何。’ 褚生曰：‘漢儒訓詁，雖有過處，其精確不可磨者，朱子亦尊守之。今之學者，動功漢儒之刺謬，至有以朱程之說，亦爲迂滯，過當何其不自量之甚也。義理則確守程朱，訓詁則謹遵漢儒，此萬世學者之準則也。先生此言，當敬。’”(『일기』 책2 장47a, 1808년 정월 초6일조)

30) 후마 스스무, 앞의 책, 145면.

31) “南生又往吳思權處，與其師柳邁祖邂逅，卽公權之後裔，而甘肅會寧縣人，進士出身，官居刑部四川司郎中，人亦敦厚長者，又善筆藝，卽席懇受余之亭扁及堂額而來。筆法典重，頗有其家風矣。”(『일기』 책3 장19b, 1808년 정월 24일조)

던 자들로 서로 필담을 나누었다. 평암이 부채를 가져다가 송국(松菊) 그림을 그렸고 설산은 칠언절구 한 수를 지었다. 시와 그림이 놀라울 정도로 빼어나 예운림(倪雲林)과 심석전(沈石田)의 필의가 있었다.³²⁾(괄호는 인용자)

이렇게 남공철은 저유인, 오사권 등과 직접 만나 필담으로 교류하면서 학술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고 시서화로 함께 즐기기도 하였다. 이들은 남공철이 직접 만나 어울린 이들이기에 남공철의 감회는 남달랐던 것이며 그로부터 17년이나 경과한 1825년 『연경필담서』라는 글까지 따로 지었던 것이다.

2. 진용광(陳用光)·조강(曹江) 등과의 간접 교류

2.1. 진용광(陳用光)과 그 집안 사람들

남공철은 이 밖에도 진용광(陳用光), 진희조(陳希祖), 등정정(鄧廷楨), 도장위(陶章滂), 오승량(吳嵩梁) 등과도 교류하였다. 남석로가 유리창에 갔다가 문방구점인 옥흥거(玉興居)로 들어가는 진용광과 그 당질 진희증(陳希曾)을 보고 행동거지가 비범하여 그들을 따라 들어가 사귀게 되었고,³³⁾ 진용광을 통해 진희조, 등정정, 도장위, 오승량도 알게 된 것이다.

진용광은 자가 석사(碩士), 호가 수석(瘦石)으로 강서(江西) 신성현(新城縣) 사람이다. 진사 출신으로 당시 한림편수(翰林編修)로 있었다. 진희증은 진용광의 당질이다.³⁴⁾ 진용광과 진희증은 뒤에 살필 조강(曹江)과 마찬가지로 조선 문인들과 관계가 깊은 이들이다. 1800년에 진희증이, 이조원(李調元)이 사천(四川)에서 인쇄한 이덕무의 『청비록』 3권을 당숙 진용광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진용광은 그것을 친구들과 돌려 읽었다.³⁵⁾ 또 진희증은 1801년에

32) “一日良師往琉璃廠，挾二客至。一雪山榕裕仁，卽唐遂良之後，一是平菴吳思權，二人者皆爲應舉留京者也。相與爲筆談，平菴取扇作松菊畫，雪山題七絕一首，詩與畫警絕拔俗，有倪雲林沈石田筆意。”(南公轍, 『燕京筆談序』, 『穎翁再續藁』 卷2)

33) “南生昨於琉璃廠見其二人步入玉興居，舉止非凡，遂隨入訂交。彼約以今日來訪，故南生踐約而往焉。玉興居者，卽塵房之扁，而賣文房諸具處也。”(『일기』 책2 장34b, 1808년 정월 초4일조)

34) “蓋陳用光者，字碩士號瘦石。江西新城縣人，卽漢之陳太邱後裔，進士出身現爲翰林編修。其堂侄希曾，號雪香，亦進士出身，而現爲內閣學士兼禮部侍郎。”(『일기』 책2 장34b, 1808년 정월 초4일조)

35) 李圭景, 『淸脾錄大小刻本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四, 經史雜類 二.

동지겸진주사(冬至兼陳奏使) 부사 서미수(徐美修)의 반당으로 연행한 서유진(徐有鎭)과 교류한 바 있고, 당시 서장관으로 연행한 이기헌(李基憲)도 서유진의 소개로 만난 적이 있는 인물이다. 이기헌과 서유진은 당시 진희증뿐만 아니라 그 형 진희조, 당숙 진용광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³⁶⁾ 진용광 집안 사람들은 일찍부터 조선 사신들과 교류해 왔던 것이다.

진희조(陳希祖)는 진용광의 당질이자 진희증의 친형으로 자는 옥방(玉方), 호는 의재(宜齋)다. 진희조 또한 남공철에게 서문을 써 주었다. 이 밖에도 남공철은 등정정(鄧廷楨), 도장위(陶章滂), 오승량(吳嵩梁)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고 있는데,³⁷⁾ 이 가운데 주목할 인물이 오승량이다. 그 역시 조선 문인들과 인연이 깊다. 오승량은 장사전, 웅방강, 원매의 제자로 김정희(金正喜), 김명희(金命喜), 조수삼(趙秀三), 박사호(朴思浩), 신위(申緯), 이상적(李尙迪), 이정주(李廷柱) 등과 교류한 바 있다. 특히 김명희는 귀국 후에도 오승량과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오승량이 김명희와 그 형 김정희, 그 부친 김노경에게 각각 오승량 자신의 시선집 『향소산관시초(香蘇山館詩抄)』 등을 보내왔다고 한다.³⁸⁾ 김정희와 김명희는 장사전과 원매에 대한 오승량의 시각에 영향을 받는 등 오승량은 19세기 초 조선 문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³⁹⁾

한편 진용광은 진희증, 진희조 등 그 집안 사람들이 그러했듯 조선 문인들과의 교류를 각별히 생각하였는데, 이덕무의 『청비록』을 구하여 친구들과 함께 읽는 것도 그렇거니와 이전에 사행을 따라 온 조선 문인과의 필담 기록도 소중하고 간직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일기』에 있는 내용이다.

36) “徐友稚範昨與一朝士邂逅，約今日相訪。故和叔與之偕往其家。家在琉璃廠南甯衢中。朝士姓名陳希曾，進士出身，曾經翰林侍讀，方任春坊右庶子。兄希祖，刑部主事，弟希孟，拔貢生。其從叔用光，亦進士出身，翰林庶吉士。”(李基憲, 『燕行日記』下 壬戌 正月初二日條)

37) “南生往陳用光處筆談而還，言陳君約四人同會，陳希祖者，字玉方，號宜齋，以進士，現任刑部山西司主事，即希曾之親兄也。斯人古致磊落，專好古文古字，而書法亦高古之極。鄧廷楨者，字嶢筠，江蘇江寧縣人，以進士，現爲翰林編修，此人風韻俊秀。陶章滂者，號琴垞，湖南寧鄉縣人，候選知縣，尙未得缺，此人面如冠玉。吳嵩梁者，號蘭雪，江西東鄉縣人，以舉人，現居國子博士。此人雅度清楚，皆善詩能文人也。”(『일기』 책2 66b~67a, 1808년 정월 11일조)

38) 천금매, 『金命喜와 清朝 文士들의 尺牘 交流』, 『연민학지』 제13집, 연민학회, 2010, 248~250면.

39) 吳嵩梁이 19세기 초반 조선 문인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철희, 『19세기 초 한중 문학 교류와 吳嵩梁』, 『대동문화연구』 제73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 참조.

이야기하던 차에 주인이 성찬을 내어와 대접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림(곧 진용광) 덕분에 금릉 선생의 시문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문장은 옛날 분들의 솜씨이고 시율(詩律)은 모두 맑고 고원한 아치가 있어 흠모하고 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귀국은 기자(箕子)가 남긴 봉지(封地)로 법도와 문물이 진실로 다른 외국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중국 선배들도 귀국에 현사(賢士)가 많다고 자주 칭찬해왔습니다”라 하였다.

진용광이 이번에는 적어둔 필담 기록을 꺼내어 보여주었는데, 우리나라의 관제(官制)와 산천(山川), 인물의 차례가 매우 자세하였다. 이것은 몇 년 전 상사(上舍) 서유진(徐有鎭)이 연경에 왔을 때 진군(陳君)이 그와 사귀어 필담으로 돌아가면서 묻고 답한 것을 기록해둔 것이라고 한다.⁴⁰⁾ (괄호는 인용자)

앞부분에서는 남공철의 시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뒷부분에는 진용광이 조선의 서유진과 필담했던 기록을 내어보인 일을 적고 있다. 서유진이 연행사를 따라 북경에 갔던 것은 1801년이였다. 당시 서유진은 부사 서미수(徐美修)의 반당으로 연행하였다.⁴¹⁾ 위 기록을 통해 서유진은 진용광과 조선의 관제나 산천, 인물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해 자세한 필담을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후반 이후 조선 문인들은 연행 과정에서 북경 인사들과 교류하고 그들로부터 서문을 받아오거나 필담을 나누고 돌아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는데,⁴²⁾ 진용광이 조선 문인과 필담한 기록을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것을 보면 그러한 풍조는 꼭 조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뒤에서 언급할 축지구(祝志裘)의 예에서도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2 조강(曹江)과 이임송(李林松)

남공철은 연행 전부터 조강(曹江, 1781~?)의 이름을 들어 알고 있었다. 문집 서문까지 부탁하였고, 그 글을 『금릉집』의 맨 앞에 수록할 만큼 남공철은 조강을 각별하게 생각하였다. 조강 또한 남공철을 만나보고 싶어했지만

40) “談次，主人出盛饌待之。諸人曰：‘因翰林獲睹金陵先生詩文，文是古作者手段，詩律俱有清遠之致，不勝欽頌。又以爲貴國爲箕子遺封，憲章文物，固非他外蕃所能，並中朝老輩，亦亟稱貴國之多賢士也。’陳用光又出所撰筆談記以示之，我國官制及山川人物敘次，頗詳。蓋年前徐上舍有鎭入燕時，陳君與之訂交，回筆談問答，仍以爲記云。”(『일기』 책2 장66b~장67a, 1808년 정월 11일조)

41) 李基憲, 『辛酉十月日 冬至使 行中座目』, 『燕行日記』.

42) 이러한 풍조는 金魯謙(1781~1833) 등에 의해 비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즐고, 앞의 논문, 224면 참조.

결국 둘은 만나지 못하였다.

그 대신 남공철은 남석로를 통해 조강 등과 소식을 주고받으며 교류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남석로의 형 남척로가 이전에 연행하였을 때 조강을 만난 일이 있었기에 남석로가 조강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임송(李林松)은 조강의 소개로 알게 된 이로, 두 사람 모두 남공철의 문집 서문을 써 주었다. 조강의 집은 유리창 남쪽 과자항(菓子巷)에 있었는데 그곳을 찾은 남석로의 전언을 바탕으로 남공철은 조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조강(曹江)은 명가의 자제로 어려서부터 신이한 재주가 있었으며 지금 나이 아직 서른이 채 안 되었다. 미목이 시원시원하며 총민(聰敏)하고 영오(穎悟)하여 전부터 자주 조선 사람들과 만났는데 필담하는 사이에 시든 문장이든 붓만 잡았다 하면 바로 지어내니 생각하지 않고 짓는 것만 같았다. 나 또한 조선에 있을 때 그의 이름을 익숙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 시와 글씨가 모두 매우 뛰어나니 오중(吳中)의 명사라 하겠다.

남생이 와서 말하기를, 조강이 나의 시문을 보고 매우 칭찬하며 말하기를 “금릉공(金陵公)의 시문은 모두 대가의 경지에 이르고 있으니 비후한 사인(士人)이 보기 드문 것입니다. 절하고 찬미하고도 경탄하고 경탄하게 됩니다. 부탁하신 서문은 부처님 머리에 똥을 묻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감히 쓰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존귀한 명(命)이 이미 이처럼 간절하시니 마땅히 우러러 뜻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라 하였다 한다. 남생이 “금릉공께서 일찍이 훌륭한 명성을 들으시고 한번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라시니 꼭 관(館)으로 오십시오”라 말하니 대답하기를 “불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관중(館中)에 모두 귀국 분들만 계시다면 무방하지만 혹 우리나라 관리라도 있으면 의심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귀국의 사신(남공철)께서 또한 상황을 보아 유리창으로 오실 수 있으신지요? 만일 보고자 하신다면 오류거(五柳居)가 좋을 듯합니다”라 하였다. 오류거는 바로 책사(冊肆)이다.⁴³⁾ (괄호는 인용자)

43) “蓋曹江以名家子，幼有神才，見今年未三十。眉目踈朗，聰敏穎悟，自前好延撫朝鮮人，筆譚之際，或詩或文，操筆立成，若不經意，余亦在東時，稔聞其名。其詩筆俱絕佳，可謂吳中名士也。南生來言，曹江見余之詩與文，大加歎賞，曰‘金陵公詩文，均造大家境地，爲鄙士人所罕見。拜頌之次，欽佩欽佩。所托序文，無異佛頭着糞，不敢下筆，而尊命既如此勤，當仰副’云。南生以金陵公夙聞大名，切欲一奉，必爲徒近進館爲言，則答曰，‘恐不便耳。館中皆貴國人，卽無妨。或有我國官人，則無寧避嫌。貴國使臣，亦不能乘隙一遊琉璃廠中乎？如欲相見，惟五柳居爲便’云。五柳居者，卽冊舍也。”(『일기』 책2 장50b, 1808년 정월 초7일조)

남공철 이외에 유득공(柳得恭), 홍석모(洪錫謨), 신위(申緯), 김정희(金正喜), 조면호(趙冕鎬), 박사호(朴思浩) 등도 연행 과정에서 조강과 교유한 바 있다.⁴⁴⁾ 남석로의 형 남척로도 조강을 만나본 일이 있거니와 남공철과 가까이 지낸 유득공이 이미 1801년 사행에서 그를 만난 일이 있어⁴⁵⁾ 남공철도 연행 전부터 조강을 알고 있었고 그를 만나고 싶어했다. 남공철이 남석로를 북경에 데려간 것도 조강과의 만남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남공철은 어찌서 조강을 직접 만나지 못하였을까? 정사로서 행동 제약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⁴⁶⁾ 위 인용문에서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조강은 남공철을 만나고 싶어했지만 옥하관을 직접 찾았다가 청(淸)의 관리를 만나게 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⁴⁷⁾ 신위(申緯) 또한 1812년 연행 당시 조강을 직접 만나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가 서장관, 즉 삼사(三使)의 일원으로 연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⁴⁸⁾ 조강과 교유한 조선인들은 대부분 조강을 직접 만나 교유하였지만 남공철이나 신위가 그를 직접 만나보지 못한 데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임송(李林松, 1770~1827)은 조강의 소개로 알게 된 이로서, 조강의 부탁으로 그도 남공철의 문집에 서문을 써 주었다. 이임송은 남공철에게 써준 서문에서 남공철과 교유하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옥수(玉水, 조강의 字)는 학문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으며 객을 좋아하여 부친의 풍도가 있어 해외 사람들까지도 한두 사람 친숙한 이들이 있었으니 가령 조선의

44) 졸고, 앞의 논문, 207~208면 참조.

45) 유득공은 書肆에서 조강을 만나 그와 친하게 지냈다고 하였다. “曹江字玉水, 江蘇青浦人, 書肆中識之. 年二十一, 美姿容. 問其所寓, 正陽門外蔣家衞衙雲間會館也. 出游琉璃廠時, 多歷訪, 見其獨處習隸書, 日益親.”(柳得恭, 『燕臺再遊錄』 1801년 4월 15일조)

46) “曹玉水曰: ‘心菴所寓, 在宣武門外韓城會館, 地頗僻遠, 耳目不甚煩. 金陵先生或曰遊覽之, 便簡其騶率, 順道一枉, 則庶慰渴仰之懷.’ 南生以金陵公亦非無意, 而使臣體重, 不得私自枉屈爲言, 則二人不勝悵然云矣.”(『일기』 책2, 장68b~장69a, 1808년 8년 정월 13일조)

47) 曹江은 조선 사신이 머물던 玉河館뿐만 아니라 世人들의 이목으로 혐의를 받을 만한 장소에 가는 것 자체를 꺼렸던 듯하다. 유득공이 조강에게 유리장에서 만나자고 하자 조강은 ‘세인들이名利를 다투는 곳이라 비방을 불러오기 쉽다’며 꺼리는 뜻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約游廠中, 則不肯曰: ‘此名利場, 易招謗.’ 其言又是也.”(柳得恭, 『燕臺再遊錄』 1801년 4월 15일조)

48) 그럼에도 申緯는 曹江과 墨緣이 있다고 하며 정원용이 연행할 때 그에게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한 바 있다. “菴林名家, 有陳石士, 曹玉水兩人, 僕雖未及謀面, 曾與有一段墨緣, 試往問之.”(申緯, 『經山閣學, 充賀至使入燕索詩, 故賦此爲別』註, 『警修堂全藁』 책18)

유득공이나 박제가는 모두 지난번 옥수에게 들러 만난 적이 있다. (옥수가) 손에 한 부의 책을 들고와 내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이는 조선의 사신 남금릉(南金陵) 선생의 시문입니다. 서문 한 마디 써주시지 않겠습니까?”하였다.⁴⁹⁾(괄호는 인용자)

이임송은 강소(江蘇) 상해현(上海縣) 사람으로 호는 심암(心菴)이며 당시 나이 서른아홉이었다. 그의 스승은 바로 기균(紀昀, 1724~1805)이었다. 그는 천문지리와 의약복업 등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시주(詩酒)에 벽이 있었으며 어디에도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여 안빈낙도하고 있었다.⁵⁰⁾ 조강은 이임송과 절친하게 지내며 수시로 만났던 듯한데, 위 인물문에서 보듯 조강이 이임송을 찾아가 남공철의 시문에 대한 서문을 부탁한 것, 그리고 조강이 남공철을 만나고 싶다면서 이임송의 집이 외진 곳에 있으니 그곳에서 보자고 한 것⁵¹⁾ 등에서 그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남공철은 북경에 머무는 동안 여러 차례 남석로를 이임송의 거처로 보냈다. 이임송의 모친을 축수(祝壽)하는 시를 지어 보내는가 하면⁵²⁾ 그에게 바둑알을 보내기도 하였다.⁵³⁾

한편 어느 날 남석로가 찾은 이임송의 거처에는 이임송의 처형이자 축덕린(祝德麟, 1742~1798)의 아들 축지구(祝志裘)라는 자도 있었다. 축덕린은 일찍이 이덕무도 만나 교유한 일이 있었으므로 남공철 또한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덕무는 1778년 사은겸진주사 서장관 심염조의 군관으로 연행하였다. 이때 박제가도 정사 체제공의 군관으로 동행하였다. 이덕무는 박제가와 함께

49) “玉水既渴於學，好客有父風，海外人猶有一二習者，如朝鮮柳君得恭、朴君齊家，皆是昨過玉水許，則手一編示余曰：‘此朝鮮使南金陵先生詩及文也，盍爲弁一言。’”(李林松, 『金陵先生文集序』, 『金陵集』)

50) “南生言曹君約其友人李林松同會，卽江蘇上海縣人，號心菴，年今三十九，以進士出身，現任戶部河南司主事，其師乃記尙書昀也。其爲人倜儻，多奇氣，文章博洽，筆墨如飛，天文地理醫藥卜筮，無不貫通。自以爲少負狂名，癖於詩酒。嘉慶丙辰，倅登一第，官在農曹。雖性寬大，然一官拘束不許疎狂。此時素米養母，官興頗淡，少年跌宕之致，消磨殆盡。”(『일기』 책2 장68b, 1808년 정월 13일조)

51) “曹玉水曰：‘心菴所寓，在宣武門外韓城會館，地頗僻遠，耳目不甚煩。金陵先生或曰遊覽之，便簡其騁率，順道一枉，則庶慰渴仰之懷。’南生以金陵公亦非無意，而使臣體重，不得私自枉屈爲言，則二人不勝悵然云矣。”(『일기』 책2 장68b~장69a, 1808년 정월 13일조)

52) “送南生于李林松處，袖傳所製壽母詩。詩曰：‘條風初暢酒盈觥，怡樂瀾瀾老太平。才子文章還薄祿，足知賢母外榮名。’”(『일기』 책3 장18a, 1808년 정월 23일조) 이 시는 <壽心庵李主事母太恭人>이라는 제목으로 『금릉집』 권4에도 수록되어 있다.

53) “南生贈以黑白棊子一部，則稱以自然棊，再三稱謝云。蓋彼人棊子，皆燻造故耳。”(『일기』 책3 장19a, 1808년 정월 23일조)

축덕린의 집에 머물던 이정원(李鼎元, 1750~1805)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축덕린과도 교분을 맺었다.⁵⁴⁾ 그런데 당시 축덕린과 교류한 조선인이 더 있었으니 바로 서장관 심엄조(沈念祖, 1734~1783)다. 남석로가 전한 이야기는 이렇다.

같은 자리에 축지구(祝志裘)라는 자가 있었는데 곧 지당(芷塘) 축덕린(祝德麟)의 아들이자 이군(이임송)의 처형이다. 곁에서 써 보여주기를 ‘귀국(貴國)에서 오신 심공(沈公) 엄조(念祖)께서 일찍이 선대부와 문자로 교분을 맺었습니다. 심공은 서법(書法)과 고문(古文)이 모두 옛사람의 심원한 경지에 이르렀지요. 집에 두 책이 있는데 오늘에 이르도록 겹겹이 싸서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라 했다고 한다. 듣기로 지당(芷塘)은 건륭 때 이름난 어사(御史)이며 시문(詩文)에서 모두 일가를 이룬 자라고 한다.⁵⁵⁾(괄호는 인용자)

1778년 서장관으로 북경을 찾았던 심엄조가 축덕린과 교류하고, 그때 심엄조는 자신의 문집 두 책을 축덕린에게 건네었다. 그 일이 있는 지 30년 후인 1808년, 조선에서 온 사행원(남석로)을 만난 축덕린의 아들이 심엄조와 자신의 부친의 교류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 만나 필담을 하였든 남석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식을 주고 받았든, 남공철이 북경에 머무는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여러 인사들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연행 전 어울리던 이덕무나 박지원, 박제가, 유득공 등으로부터 이미 북경의 인사들에 대해 익숙히 전해들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북경에 도착하고 얼마 안 있어 남석로를 조강의 처소로 보내고, 진용광 집안 사람들과의 교류를 자세히 적고 있는 것을 보면 남공철은 이미 연행 전부터 북경에서 교류할 인사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4) “同在先訪李墨莊，墨莊在魏染衙祝編修德麟家，直往祝家，墨莊果在焉。祝時方居母憂…(中略)…與墨莊筆話，因請見主人。主人越趨良久始出。見素衣良甚小而精，年今三十七。浙江海鹽人，官編修。學右朱子，詩宗香山，文許毛西河，音學從廣韻。蓋與程善芳李調元，鬱然有藝林之重望。”(李德懋, 『入燕記』下 정조2년 5월 28일조, 『청장관전서』 권67)

55) “座有祝志裘者，卽芷塘德麟之子，而李君之妻兄也。從旁書示‘貴國行人沈公念祖，曾與先大夫締文字交。沈公書法古文俱入古人堂奧，家有冊二本，至今什襲藏之云。聞芷塘乾隆時名御史，而詩文均成家者矣。’”(『일기』 책3 장19a, 1808년 정월 23일조)

남공철이 북경에서 교유한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 명 유민의 후손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남공철의 대명의리론과 관련이 있다. 그는 한인(漢人)이 명 사대부의 후예로서 청조에서 원망을 머금고 고통을 참으며 어쩔 수 없이 벼슬하고 있다면서 그들에게 연민의식을 품고 있었다.⁵⁶⁾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남공철은, 중국에 들어가서 한인과는 교유해도 되지만 만인과 교유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도 하였다.⁵⁷⁾ 한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그의 연행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가령 이임송(李林松)이 한인으로서 청조(清朝)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것이라든가 조선이 명(明)의 유제(遺制)를 따르고 있음을 강조한 것, 이러한 내용의 필담을 한 후 이임송이 곧바로 종이를 찢어버린 것을 특기해 그에 대한 연민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⁵⁸⁾

남공철이 북경에 간 시기는 이미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한 연행록 열풍이 한바탕 조선을 휩쓴 뒤였고, 연행과 북경에 대한 정보가 나날이 축적되어가던 시기였다. 게다가 남공철은 젊은 시절 어울린 이덕무, 박제가, 박지원 등의 선배들로부터 북경 소식을 들어 북경에 대한 정보에 밝았다. 이러한 사전 정보는 남공철이 북경에 도착하고 나서 그곳 인사들과 접촉할 때에만 소용된 것은 아니었다. 북경의 기이한 볼거리들에 대해서도 이미 익숙하게 들어 알고 있던 남공철은 환술(幻術)을 관람하면서도 여느 관람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IV. 환술(幻術)에 대한 기록과 그 특징

대부분의 연행록에서는 중국에서 관람한 환술(幻術)에 대한 기록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여러 볼거리 가운데 환술은 특히 흥미로운 볼거리였기 때

56) “漢人是皇明士大夫之餘裔。所以應舉仕宦而不能死者，與我人將皮幣珠玉，拜謁殊庭，其含冤忍痛迫不得已之心，則同耳。”(南公轍, 『自識』, 『金陵集』)

57) “我人入中國，與漢人交可，與滿人交不可。”(南公轍, 『與李元履』, 『金陵集』 卷10)

58) “李君語多忌諱，以爲中朝一切，禮制尚有古意。惟喪制不行，大致尚存，其細各殊。蓋本朝滿洲自行滿禮，未爲漢人定制故也。又曰：‘方今仕進多門，未免淆雜。’又曰：‘朝庭之上，不貴清氣，而反貴市井之氣。’又曰：‘製置深衣，祭時則服之。’…(中略)… 書畢，卽扯裂云。李君可謂有志而慨世者也。”(『일기』 책3 장18b~장19a, 1808년 정월 23일조)

문이다. 가령 이덕무는 환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통을 들고 여러 사람들에게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준 후 전처럼 탁자에 두고 보자기를 덮더니 손으로 보자기 속에서 접시와 사발 따위의 그릇 20여 개를 꺼내어 탁자 위에 늘어놓는데 거기에는 모두 과일과 채소가 가득했다.⁵⁹⁾ (괄호는 인용자)

빈 통에서 과일과 채소가 가득한 그릇이 나오게 하는 환술이다. 이덕무는 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연행록에서의 환술 기록은 이처럼 환술의 연행 양상이나 환술에 대한 인식, 환술을 관람하는 관중들의 반응을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공철 연행록에는 남공철이 직접 관람한 환술이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다. 1808년 1월 4일, 남공철은 환술인들을 옥하관 뜰로 불러들여 부사 및 서장관 등과 함께 환희(幻戲)를 구경하였다. 환술이 속임수를 일삼는다는 점에서 남공철 스스로 환술 관람을 불경한 일이라 하면서도 ‘환술이 울적한 마음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⁶⁰⁾ 환술 구경을 불경한 것이라 한 것은 의례적인 언급에 불과할 뿐 환술에 대한 남공철의 서술은 일관되게 상당한 흥미를 가지고 분석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8세기 이전 환술 기록이 매우 단편적인 동시에 환술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면모다.⁶¹⁾

남공철은 모두 18가지의 환술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환술 관람과 관련한 그의 기록의 특징은 그가 시종 환술의 속임수를 파악하고자 애썼다는 점이다. 열여덟 가지 환술 가운데 다섯 번째에 대한 다음 서술에서 그 점이 특히 잘 드러난다.

59) “又持筩回示，如前置卓覆襪，手探樸碗之屬二十餘器，皆盛菜果，羅列于卓。”(李德懋，『入燕記』 下，『靑莊館全書』 권67)

60) “飯後使下隸招來騙子，陳于館庭，與副三房共觀之。此雖不經之事，愁鬱中，亦堪博粲。”(『일기』 책2 장30b, 1808년 정월 초4일조)

61) 18세기 이전 환술 기록의 특징에 대해서는 임준철, 『18세기 이후 연행록 환술기록의 형성 배경과 특성』, 『한국한문학연구』 제47집, 한국한문학회, 2011, 73~74면 참조.

이번에는 흰 종이를 나비 날개처럼 찢더니 입을 벌리고 그것을 삼키고서는 손으로 입 안을 더듬었다. 그랬더니 종이가 모두 완전히 이어져 들들 말린 것이 파초와 같았다. 한편으로는 산을 끝듯이, 한편으로는 땅에 내리꽂듯이 하였는데 삼킨 것보다 배는 많았다. 다만 재주를 부리는 사이 가만히 몸을 웅크리고 한 손을 품속에 넣어 어떤 물건을 빼어내 입 안에 넣었는데, 그 손 움직임의 빠르기가 번개 같았다. 이것이 허접이었는데 뜰을 가득 메운 사람들 중에 그것을 아는 자가 거의 없었다.⁶²⁾

이 환술은 1720년 이의현(李宜顯)이 연행하였을 당시 관람한 것과도 흡사한 것으로, 18세기 이전부터 이미 북경에서 연행되던 것이었다.⁶³⁾ 남공철과 절친하였던 이덕무 또한 연행 당시 같은 환술을 구경한 적이 있다. 이덕무는 1778년(정조2) 진주사 심염조의 수행원으로 북경에 가, 당해 5월 26일 옥하관에서 남공철이 위에서 서술한 것과 동일한 환술을 관람하게 된다.⁶⁴⁾ 이의현이나 이덕무는 해당 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 기술한 후 곧바로 다른 환술에 대한 서술로 넘어간다. 그에 반해 남공철은 위 인용문의 후반에서와 같이 해당 환술이 어떤 속임수를 쓰고 있는지 분석하여 덧붙이고 있다.

또 담요를 펼쳐두고 진처럼 주문을 외다가 열어젖히니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나왔다. 비록 매우 기이하기는 하지만 담요를 들어올릴 때 보니 강아지가 옷 속에서 담요 밑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보였는데 그 형세가 매우 빨랐으니 생각건대 잘 훈련되어 그러한 듯하다.⁶⁵⁾

62) “又持白紙，裂如蝶翅，開口吞之，仍以手探口。紙皆完連斜卷，如抽蕉。一邊引山，一邊投地，其多有倍於所吞者。但施術之際，微鞠其躬，一手旋入懷中，掠取一物，納于口內。其手勢之疾，瞥然如電。此其破綻處，而滿庭之人，鮮有覺之者矣。”(『일기』 책2 장31a, 1808년 정월 초4일조)

63) “又以扇子攤鋪於床上氈紙上，而出白色唐紙細條一掬，置之扇上，招我國軍牢，立之床側，一邊念呪，一邊裂碎紙條，捲入渠之口中吞之，又捲入軍牢之口，使之吞含後，把木童子附著耳朵邊，而念呪良久，還置木童子於床上，以兩手互指空中。仰天念呪，拳扣渠之喉嚨者數三次，又打兩腮者數三次，張口牽出所入碎裂紙條，則青紅黃綠白各色紙條長二尺餘者，七八條出來，而一一拗撚，其大如筋。遂置床上，又連續牽出白細紙條長十餘尺者，繙積於床上，少無濕氣。”(이의현, 『경자연행잡지』, 『도곡집』 권29)

64) “又持白紙，裂如蝶翅，張口吞之，仍以手探口。紙皆完連斜卷，如抽蕉。”(李德懋, 『入燕記』下, 5월 26일조, 『靑莊館全書』卷67)

65) “又鋪氈念呪如前，開示則有一小犬，搖尾躍出。雖甚可異，而見其揭氈之際，小犬自衣中跳入氈底，其勢甚疾，想回馴習而然矣。”(『일기』 책2 장32b, 1808년 정월 초4일조)

이 환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남공철은 어떤 속임수를 쓰고 있는가를 면밀히 관찰하여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환술을 관람하는 태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즉 환술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며 불경한 것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 기저의 세계관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다. 즉 신이해 보이는 현상(환술)에 대해 단순히 불가사의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것이 현상계에서 인간의 감각에 의해 파악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당시에는 오늘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과학적인 세계관이 만연해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남공철이 환술에 대해 보이고 있는 태도는 확실히 근대적인 사물 인식 태도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환술에 대해 기록하고 나서 남공철은 북경에서의 진귀한 구경거리들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북경 길거리에는 다리 하나인 아이와 발이 여덟인 돼지가 구경꾼들에게 돈을 받는다. 또 어떤 여자 난쟁이는 키가 두 척이 안 되고 얼굴은 보통 사람처럼 큰데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잘 추어 구경꾼들 가운데 돈을 던져주지 않는 이가 없다. 또 뱀을 놀리는 자도 있는데 (뱀의) 크기가 팔뚝만 하다. 또 쥐를 부리는 이도 있는데 (쥐가) 사람이 뜻하는 대로 따른다. 또 용을 부리는 이도 있는데 바로 가짜 용이다. 통 속에 (가짜 용을) 가득 채우고 한 사람이 통 밖 평평한 땅을 발로 구르면서 크게 소리치면 용이 통 속에서 어금니를 내밀고 발과 같기를 움직인다. (그것들을) 모두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물을 내뿜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또 호랑이를 부리는 자도 있는데 호랑이의 발톱과 이빨을 뽑아버리고, 부리는 자가 바로 앞에서 크게 소리치면 호랑이가 그때마다 입을 벌려 드디어 사람 머리를 호랑이 입 안에 집어넣으면 호랑이가 삼켜 씹는 시늉을 하는데 보기에 매우 무섭다 한다. (북경에는) 없는 게 없다고 하겠다.⁶⁶⁾ (괄호는 인용자)

이는 남공철이 직접 목도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북경의 진귀한 볼거리들에 대해 전해들은 것들을 모아 적은 것이다. 남공철이 이렇게 북경

66) “北京街路，有一脚兒八足猪，受錢視人。又有女侏儒，長不滿二尺，面大如平人，回旋善舞，觀者無不擲錢。又有弄蛇者，大如手腕，又有弄鼠者，隨人指意。又有弄龍者，即假龍也。盛于桶中，一人足踏桶外平地而大呼，則龍於桶中，張牙舞爪鬐鬣，皆張屈伸噴水，難辨其真假。又有弄虎者，去其爪牙，弄者立前大呼，則虎輒張口，遂以其頭，納諸虎口，則虎作吞噬之狀，所見極怕云，可謂無物不有矣。”(『일기』 책2 장34a, 1808년 정월 초4일조)

의 진귀한 구경거리들을 일일이 적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들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용문의 끝부분에 ‘없는 게 없다’라 한 것을 보면 그가 그러한 구경거리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없이 상당한 흥미를 갖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V. 결론

남유용(南有容)은 조선이 중화의 예악문물을 계승하였다는 자부심을 갖고 청의 문물, 심지어 청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⁶⁷⁾ 이러한 대명의 리론은 그 아들 남공철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남공철의 연행록 곳곳에서 만한(滿漢)을 비교하는 서술, 혹은 한인(漢人)에 대한 연민의식이 스며 있는 서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남공철이 북경에 가서 교유한 이들이 모두 명 유민의 후손들이었다는 점에서도 그가 대명의리론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공철은 그 부친 남유용이 그랬던 것처럼 조선이 중화의 예악문물을 계승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청의 문물이나 청의 존재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연행록에서 남공철은 시종 담담한 시선으로, 혹은 호감을 가지고 청 황제나 청의 문물을 직시하고 있다. 청이 문명국 명을 멸망케 한 오랑캐라는 강고한 대명의리론자의 시선 대신 호기심 어린 시선만이 남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었듯이 남공철이 북경에서 명 유민의 후손들과 교유한 것이 그로서는 대명의리를 지키기 위한 보루였던 것이고 그 나머지 환술이나 진귀한 구경거리 등 청의 문물에 대해 보내는 호기심은 이미 대명의리라는 이데올로기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었다.

남공철의 연행록은, 비록 3책 중 제1책은 일실되었지만 나머지 두 책으로도 그 특징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정사(正使)로 연행에 참여하여 행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군관으로 동행한 남석로(南石老)를 통해 북경 문인들과 교유하거나 북경 가로(街路)의 볼거리들에 대해 상세히 전해 들을 수 있었다. 행동 제약이 많았던 대신 남공철은 관소(館所)나 노정(路程)에서 차분히 연행

67) 줄고, 앞의 논문, 219면.

록을 저술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남공철의 연행록은 그가 조선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대략적인 모습을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남공철의 연행록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힐 기회가 없었다. 남공철 사후 유전(流轉)되던 그의 연행록은 향원(嚮園)이라는 이의 집에 흘러들게 되고, 그마저도 한 책은 사라지는 운명을 맞는다. 오랜 동안 그 집에서 잊혀진 채 보관되던 남공철의 연행록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방치되어 있던 그것을 우연히 읽어보고 후지(後識)를 남긴 향원뿐이었다. 이후 알 수 없는 경로로 일본으로 흘러들어갔고, 또 오랜 세월 사람들의 이목에서 멀어진 채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자료는 정사의 연행록이라는 점, 그럼에도 연행 과정에서의 견문에 대한 서술에 다분히 사인(私人)의 감각과 입장이 투영되고 있다는 점, 중국 문인과의 교류 양상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 환술 기록이 분석적이고 풍부하다는 점 등 여러 면에서 가치 있는 연행록으로 생각된다. 특히 환술에 대한 기록은 여러 측면에서 흥미로운데 본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남공철의 환술 기록과 함께 본고에서 상세히 다루지 못한 남공철 연행록의 세부 면모는 차제에 별도로 다룰 것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1. 자료

『論語』

金善民, 『觀燕錄』, 미국의회도서관 소장본(국립중앙도서관 DB).

南公轍, 『金陵集』, 한국문집총간 272.

南公轍, 『日記』, 이시카와 다케요시 도서관 세이키도 문고 소장본.

申緯, 『警修堂全藁』, 한국문집총간 291.

元在明, 『芝汀燕記』,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본(원재명, 『국역 지정연기』, 서한석·신로사 역,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7의 국역 및 원문 영인본 참조).

柳得恭, 『燕臺再遊錄』(『冷齋書種』, 규장각 소장본).

李基憲, 『燕行日記』(임기중 편, 『燕行錄全集』65, 동국대출판부, 2001).

李德懋, 『청장관전서』, 한국문집총간 259.

李宜顯, 『陶谷集』, 한국문집총간 181.

撰者未詳, 『中州偶錄』, 關西大學圖書館 소장본(임기중 편, 『燕行錄續集』122, 상지원, 2008).

2. 단행본

안순태, 『남공철 산문 연구』, 월인, 2015.

의령남씨대종회 편, 『의령남씨족보』, 의령남씨대종회, 2006.

정민 외, 『북경 유리창』, 민속원, 2013.

후마 스스무, 『연행사와 통신사』, 하정식 외 역, 신서원, 2008.

3. 논문

안순태, 『남공철의 연행 체험과 대청의식』, 『국문학연구』 제36집, 국문학회, 2017, 203~232면.

이철희, 『19세기 초 한중 문학 교류와 吳嵩梁』, 『대동문화연구』 제73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 101~137면.

임준철, 『18세기 이후 연행록 환술기록의 형성배경과 특성』, 『한국한문학연구』 제47집, 한국한문학회, 2011, 65~104면.

천금매, 『金命喜와 淸朝 文士들의 尺牘 交流』, 『연민학지』 제13집, 연민학회, 2010, 233~263면.

A Study on the Yonhaengnok of *Nam Gong-cheol**

An, Soon-ta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overall contents of "*Diary*日記" of *Nam Gongcheol*南公轍 and reveal its characteristics. In the year of 1807, he participated the ambassador group as a representative officer of Donggisa冬至使, and his diary recorded his experience.

"*Diary*" has two books in *Seikido*成篋堂library of *Isikawa Takeyoshi*石川武美 library in Tokyo, Japan. Originally, there were three books, but the first one was lost. However, it is possible to reconstruct the journey of the first book that has been lost through the "*Jungju-Urok*中州偶錄", which is the record of the person who participated in the same trip. The second book and the third book of the present book are the record from the time immediately after arriving in *Beijing* to the time of returning to Joseon after completion of the mission. It is presumed that the "*Diary*" was recorded during the trip or during the stay in *Beijing*.

Because he participated in the group as a representative officer, he was restricted from acting in the process of going to *Beijing* from *Hanyang* and staying in *Beijing*. Because of this, he was very limited to be able to see and hear directly. Instead, he was exchanging information with Chinese people through *Nam Seokro*南石老, and he recorded what *Nam Seokro* have reported. The "*Diary*" records most of the exchanges with the Chinese literary people through the *Nam Seokro*, but also reports on what *Nam Gong-cheol* have seen himself. During his stay in *Beijing*, he met with many Chinese people including *Cao Jiang*曹江, *Chen Yongguang*陳用光, and *Zhu Yuren*褚裕仁. "*Diary*" also has a detailed record of it.

Another remarkable thing in "*Diary*" is the record of the magic. *Nam Gongcheol* invited the magician to watch the magic, and it is characteristic that the portrayal of the manner in which it is performed is not only realistic, but also describes in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7S1A5A8020929).

an analytical manner what kind of tricks the magic is taking.

There is little known about the existence of *Nam Gongdoeol's* Yonhaengnok. Descriptions of things such as the building system are overly detailed, but such detailed descriptions seem to be glowing in the recordings of the Chinese literary companions and magic.

keywords: *Nam Gong-doeol*, Yeonhaengnok, representative officer, magic, magician, *Cao Jiang*, analytical viewing of magic

접수일자: 2019. 3. 31.

심사기간: 2019. 4. 1.~2019. 5. 10.

게재결정: 2019. 5. 10.